

‘분위기 반전’ KIA, 순위싸움 시동 건다

투·타 밸런스 찾으며 지난주 두산전 위닝시리즈 등 4승2패
삼성 원정·LG와 안방서 격돌…김도현 첫 승·팀 3연승 주목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2024년의 기억을 살린 ‘호랑이 군단’이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건다.

각 팀과 전초전을 끝낸 KIA 타이거즈가 22일부터 본격적인 승수 쟁기에 나선다.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으로 가 주중 3연전을 갖는 KIA는 이후 안방으로 돌아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앞선 삼성과의 첫 대결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위즈담의 4경기 연속 홈런에도 불펜 싸움에서 밀리며 2-4 역전패를 기록했던 KIA는 다음 날에는 네일의 7이닝 무실점 호투로 3-1 신승을 거뒀다.

이어 잠실에서 전개된 LG와의 첫 맞대결에서는 2패만 기록했다.

4일 KIA가 경기 시작과 함께 2점을 만들었지만 선발 양현종이 바로 1회말 동점을 허용하는 등 5이닝 4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비로 하루 쉬어간 뒤 치러진 6일 경기에서는 올라가 잠실 마운드에 고전하면서 1-5 경기의 패전투수가 됐다. LG는 이날 승리로 10승 선착에 성공했다.

KIA는 달라진 투타밸런스로 앞선 승부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KIA는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 지난주 연달아 위닝시리즈를 달성하면서 4승 2패의 성적을 만들었다.

승리 분능을 깨운 극적인 장면들도 있었다.

17일 KT와의 경기에서 3-4로 뒤진 9회말 1사 만루에서 ‘캡틴’ 나성범이 긴 침묵을 깨고 극적인 끝내기 안타를 장식했다. 초반 실점 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한 KIA는 전성현의 난조로 다시 리드는 내렸지만, 무기력하게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끝내기 승리와 함께 자신감을 얻은 KIA는 18일 윤영철의 2.2이닝 3피안타 5볼넷 2실점의 부진으로 연승은 잊지 못했지만, 남은 두 경기를 역전 승으로 장식했다.

최원준이 3안타, 박찬호가 4안타 활약을 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다.

KT전 행운의 3안타 경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룬 박찬호는 기대했던 ‘주자’ 역할도 해주면서 득점에 기여하고 있다. 4안타를 만들었던 지난 20일 박찬호는 주자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면서 연달아 실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최고참’ 최형우의 앞짜배기 활약도 이어지고 있다.

최형우는 19일 경기에서는 4회초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KIA 공격에 불을 붙였다. 20일에는 7회 2사 1-3루에서 중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KIA의 리드를 가져왔다. 경기가 그대로 6-2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최형우는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흔들리던 불펜도 조상우를 중심으로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다.

초반 부진에서 벗어난 조상우는 지난주 4경기에서 나와 3.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1승 2홀드를 추가했다.

마무리 정해영도 20일 1사 만루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실점 없이 경기를 끝내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KIA의 뒷심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필요한 것은 선발의 이닝이다. 윤영철이 3경기 부진을 이어가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활동하가 대신 선발 역할을 하게 된다. 5선발 경쟁을 펼쳤던 황동하의 이닝이 관건이다.

투수 최고참 양현종의 매서움도 필요하다. 양현종은 지난 KT전에서 5.1이닝 3실점의 준수한 성적을 작성했지만, 홈런 하나 포함 9개의 안타를 내줬고 2개의 볼넷도 기록했다. 팀의 득점 뒤 실점 패턴이 특히 아쉽다.

KIA는 삼성에 강했던 김도현을 필두로 이번 주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게 된다. 4경기에서 23.1이닝 8실점(5자책점), 1.9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도종 에이스’로 떠올랐지만 아직 승이 없다.

앞선 16일 KT전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패전 투수가 되는 등 1패만 기록하고 있다.

김도현이 꾸준한 피칭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시즌 첫 승과 함께 팀의 3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9회초 무사 2, 3루 KIA 나성범 타석 때 3루 주자 박찬호가 두산 포수 양의지의 수비 실책을 틈 타 홈으로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영, 정상 훈련 가능하다”

검진 결과 ‘희소식’…22일 기술 훈련 1군 복귀 ‘초읽기’

KIA 타이거즈 김도영의 복귀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을 하였던 KIA 김도영이 21일 선한병원에서 초음파 검진을 받은 결과 ‘정상 훈련 가능’ 소견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도영은 22일 기술 훈련을 재개한다. 이어 23일 합평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퓨처스 경기를 통해 실전에 나서게 된다. 24일에는

라이브 배팅 등 훈련을 소화한 뒤 몸상태를 확인하고, 1군 풀업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김도영은 지난 14일 실전 재개를 앞두고 진행한 MRI 검진에서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곁을 멈췄다.

이번호 감독은 ‘완벽한 복귀’를 목표로 1주일 정도 김도영을 더 지켜보기로 했고,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주말 LG전 복귀가 가시화

됐다.

김도영이 복귀하면 KIA는 ‘내야 완전체’를 구성해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KIA는 앞서 박찬호가 무릎, 김선빈이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 병동’이 됐다. 박찬호가 10일 휴식 뒤 지난 5일 복귀했고, 김선빈도 18일 두산전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한편 김도영은 지난 3월 22일 NC 다이노스와의 2025시즌 개막전에서 부상 이탈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한 김도영은 주루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고,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단독 선두였는데…김시우 PGA 공동8위 마감

RBC 헤리티지

김시우(사진)가 2년 만에 찾아온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나 이번 시즌 들어 처음 톱10에 입상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시우는 2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RBC 헤리티지(총상금 20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김시우는 공동 8위에 올랐다.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 2023년 소니 오픈 이후 2년 만에 PGA투어 우승을 바라봤던 김시우는 이날 타수를 잃으며 순위가 8위로 밀렸다.

지난 사흘 동안 잘 맞던 아이언 샷 정확도가 뚝 떨어졌고 퍼팅도 말을 듣지 않았다.

전반에 1타도 줄이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를 펼쳤

던 김시우는 10번(파4), 12번 홀(파4) 보기에 이어 14번 홀(파3) 더블보기로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김시우는 그러나 16번 홀(파4)에서 핀에 딱 붙는 두 번째 샷으로 이날 두 번째 버디를 잡아내 더 이상 추락은 멈췄다.

2월 AT&T 페블비치 12위가 시즌 최고 성적이던 김시우는 상급이 많고 페덱스컵 포인트도 큰 시그니처 대회에서 시즌 첫 톱10을 찍는 성과를 거뒀다.

페덱스컵 랭킹 역시 60위에서 44위로 올랐다. 임성재는 이글 2방을 터트리며 4언더파 67타를 때린 끝에 공동 11위(11언더파 273타)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지난주 마스터스 공동 5위에 이어 2주 연속 톱10 진입을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5월 1일부터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3연패에 도전하는 임성재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연합뉴스



3라운드에서 8언더파 63타를 몰아쳤던 안병훈은 2타를 잃고 공동 38위(6언더파 278타)에 그쳤다. 우승은 저스틴 토마스(미국)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도쿄 3관왕’ 안산, 광주세계양궁선수권 출전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 3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고양에서 열리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사선에 선다.

안산은 지난 18일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2025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종합배점 13점(1차 7점, 2차 6점)을 기록, 여자부 3위에 오르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1위는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 2위는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채영(현대모비스)이 차지했다.

남자부에서는 파리올림픽 멤버였던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각각 1-3위를 차지해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들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대회는 2009년 울산 이후 16년 만으로, 90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은 지난해 9월 시작돼 이달 막을 내렸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해 1차 선발전을 시작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선발 레이스를 펼쳤고 14일부터 18일까지 강원 원주양궁장에서 진행된 최종 2차 평가전을 마지막으로 국제무대 출전 멤버를 가려냈다.

안산이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단계부터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출전권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안산은 “선수로서 후회 없는 경기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무엇보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응원 속에 홈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그간 쉽지 않았던 대표 생활을 잠시 내



지난 18일 열린 2025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1-3위를 차지하며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출전을 확정된 (왼쪽부터) 강채영, 안산, 임시현.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려놓고 재정비할 수 있었다”며 “부상관리와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이번 평가전을 좋은 컨디션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산은 21일 진천선수촌에 입소해 본격적인 팀 훈련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5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2차대회’를 시작으로, 9월 광주세계양궁선수권까지 본격적인 국제무대에 나선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청 박승우 ‘전국장애인사격’ 4관왕

광주시청 단체·개인 메달

박승우(광주시청)가 ‘2025년 연맹회장기 전국 장애인사격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최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박승우는 공기총 입사(R4)와 복사(R5) 종목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박승우는 입사와 복사 개인전에서 각각 254.4점, 255.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입사 개인전에서는 이명호(청주시청)가 지난해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기록한 대회신기록(254.1점)을 넘어섰다.

입사 단체전에서는 1897.7점, 복사 단체전에서는 1906.0점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승우는 “대회 마지막 날 컨디션 난조로 화약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것



광주시청 장애인 사격팀(가운데)이 입사와 복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역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음 달에 개최되는 창원 월드컵대회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광주시청은 단체전 화약총 복사 부문(R9)에서

는 경기도(1850.3점)에 이은 1836.5점으로 은메달을 기록했다. 또 박동안이 입사 개인전 동메달, 임주현이 화약총 복사(R9)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